

한-케냐 인프라협력센터

주간 건설 · 인프라동향 보고 (11월 5주~12월 1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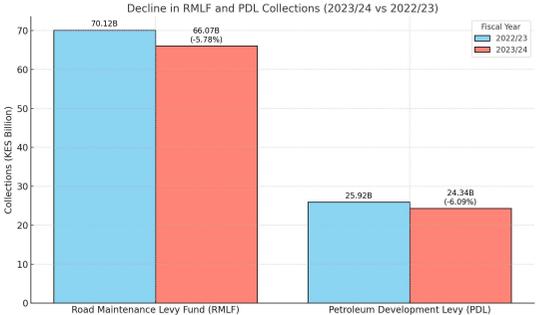
	해당년/월/주/일	전년/월/주/일	참고시점
환율(1USD)	129.6	129	2024.11.3주
인플레이션(%)	2.7	3.6	2024.10월말
CPI(points)	140.44	140.13	2024.10월말
정부부채비율(% of GDP)	70.1	66.7	2023년말

○ 케냐, 걸프 석유 수입 계약 연장

- 케냐 정부가 걸프지역 석유 대기업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에미레이트 국영석유회사(Enoc)와 체결한 수입 계약을 연장함.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전세계적 원유 가격 하락 속에서 높은 고정 연료 가격을 부담¹⁾
- 8월에 실시한 검토에 따르면, 공개입찰시스템(OTS)과 비교하여 리터당 KES 2.70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케냐는 9월기준 원유 가격이 배럴당 USD 83.30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배럴당 USD 90, 디젤 배럴당 USD 88의 고정 프리미엄을 지불
- 위 계약은 180일의 신용 기간이 있어 환율의 안정화에 도움이 됨. 11월 12일 기준 환율은 USD 1 = 129.21 KES로 하락했으며, 이는 올해 초 160 KES 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임
- 국제통화기금(IMF)은 우간다의 석유 재수출 철수, 국내 연료 수요 감소에 따라 케냐가 계약한 물량보다 적은 수량을 수입하는 위험에 대해 지적함²⁾

○ 회계연도 2023/24, RMLF와 PDL 수입 감소

- 2024년 6월 마감된 회계연도 동안, 연료 소비 감소로 도로유지비 조성기금(RMLF)과 석유개발기금(PDL)의 수입이 감소³⁾
- RMLF 수입은 4억 500만 KES(-5.78%) 감소한 660억 7,000만 KES, PDL 수입은 1억 5,800만 KES(-6.09%) 감소한 243억 4,000만 KES
- 디젤 사용량은 78,650톤(-3.55%) 감소한 214만 톤, 휘발유 사용량은 67,550톤(-4.57%) 감소한 141만 톤이 집계됨. 같은 기간 동안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16%로 약 두 배로 증가
- RMLF 수입 감소로 인해 정부는 도로 유지보수 및 개발을 위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부과세를 39%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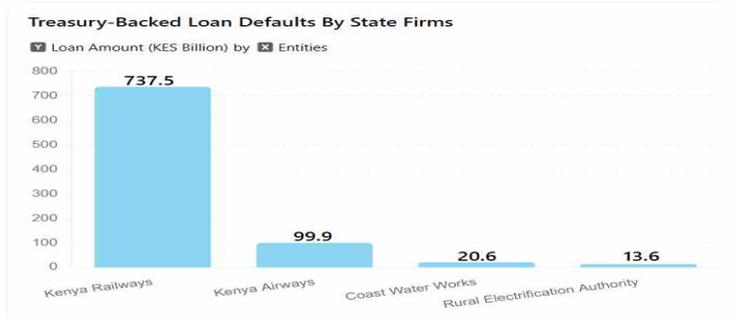
○ 케냐 국영 기업, 대출 상환 불이행

- 케냐 공공 기관들이 총 2,655억 KES의 대출 상환에 실패함. 이에 따라 재무부가 위 기관들의 채무를 해결해야하는 상황. 납세자들은 총 9,460억 KES의 대출을 부담할 위험에 처해 있음⁴⁾
- 주요 채무불이행 기관들의 총 대출 규모 :
 - * 케냐 철도(Kenya Railway): 7,375억 KES (전체 대출의 61%)
 - * 케냐 항공(Kenya Airways, KQ): 999억 KES
 - * 해안 수자원 공사(Coast Water Works): 206억 KES
 - * 농촌 전기화청(Rural Electrification Authority): 136억 KES

1) <https://nation.africa/kenya/business/gulf-oil-deal-ties-kenyans-to-expensive-fuel--4821396#story>
 2) <https://www.kenyans.co.ke/news/105964-imf-report-highlights-uncertainty-kenyas-gulf-oil-import-deal>

3)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drop-in-fuel-use-denies-treasury-sh5-63bn-in-levies-4823870#google_vignette Business Daily, Nov 15, 2024
 4) <https://nation.africa/kenya/business/state-firms-treasury-backed-loans-defaults-hit-sh266bn-4822266>

- 2024년 6월 기준, 54개의 공공 기관에 의해 차입된 대출 금액은 1조 1,900억 KES이며, 이 중 2,665억 KES가 미지급 상태. 당해 상환된 금액은 646억 KES로 전체 금액의 7%에 불과
- 중국 수출입은행(China Exim Bank)에서 차입한 표준궤철도(SGR) 관련 대출이 미지급금의 61% 차지



○ 케냐, AfDB 대출 확보 및 세계은행과 추가 자금 지원 논의

- 공공부채관리청장 Raphael Owino는 케냐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으로부터 USD 2억 규모의 대출을 확보하였으며, 세계은행과는 USD 7억 5,000만 규모의 대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임을 밝힘
-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USD 6억 600만의 대출을 승인하여, 케냐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유리한 입장을 강화⁵⁾
- 세계은행과의 대출 협상은 케냐가 합의된 정책 개혁을 얼마나 진행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며, 개발정책운영(DPO) 대출은 평균적으로 USD 7억 5,000만 수준

○ 케냐 국영 기업, 공공 계약 수혜자 정보 공개 지연

- IMF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97.2%의 공공 기관이 공공 계약을 수주한 기업의 소유권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힘. 이를 통해, 현재 투명성 목표 달성의 속도가 부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⁶⁾

- 33,000개 이상의 조달 기관 중 926개 기관만이 공공조달정보포털(PIIP)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총 10,458개의 계약과 금액은 총 2,137억 3,000만 KES 규모
- 이러한 부진은 공공조달규제청(PPRA)의 제한된 집행 권한과 처벌 부족이 원인으로 꼽힘. 이에 정부는 비협조적인 기관의 회계 담당자 및 조달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
- 기업등록서비스(BRS)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비공개 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 2024년 10월 기준, 50.28%의 기업이 이를 위반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미준수 기업은 등록 취소의 위험에 처함

○ PwC, 케냐의 제안된 세법 개정안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경고

- 감사 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24년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Tax Laws Amendment Bill, 2024)과 세무 절차 개정안(Tax Procedures Bill, 2024)의 대해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⁷⁾
- 개정안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 세무 절차법, 기타 수수료 및 세금법을 개정하는 내용 포함
- 주요 개정안 내용 :
 - * 새로운 고용세 세액 공제: 개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사회 건강 보험 기여금과 저렴한 주택 기여금에 대한 세액 공제
 - * 공공 기관에 공급 재화에 대한 원천징수세
 - * 디지털 과세 개정: 기존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주요 세금(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Tax)으로 변경.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4년 동안 이루어진 5번째 개정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
- PwC는 소득세법에 따른 재화에 대한 세금 도입이 소득세가 아닌 판매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사함을 경고
- 개정안은 세무 절차법에 따라 세무 관리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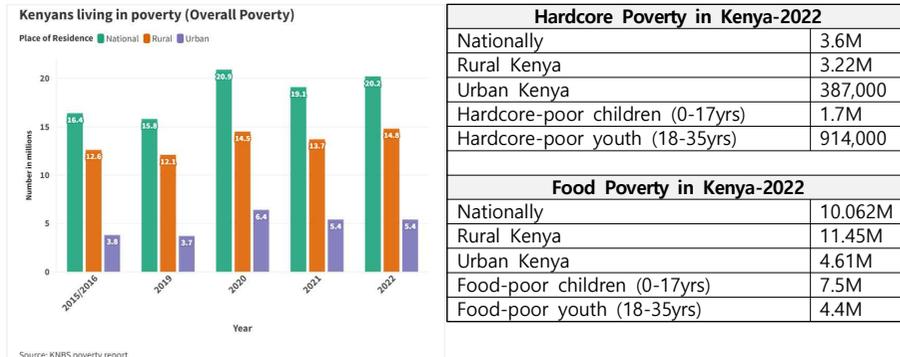
5)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kenya-talks-fresh-750-mln-world-bank-200-mln-afdb-official-2024-11-20/>

6)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57pc-of-state-firms-fails-to-disclose-beneficiaries-of-tenders-422388#:~:text=It%20warns%20of%20state%20owners%20and%20their%20stakeholders,Friday,Nov.15,2024>

7)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4/11/pwc-warn-of-impact-of-new-tax-laws/>

○ 물가 상승과 실업에 따른 케냐 빈곤 심화

- 케냐 국가통계청(KNB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과 실업이 케냐의 빈곤 수준에 미친 심각한 영향이 강조됨⁸⁾
- 2022년에 약 2,016만 명의 인구가 빈곤 상태에 있었으며, 이 중 1,600만 명은 기본적인 식료품 충당에 어려움을 겪음. 이는 전년 대비 110만 명 증가한 수치임. 이 중 1,140만 명은 농촌, 460만 명은 도시 지역에 거주
-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36만 가구가 빈곤층으로 분류된 상황



Hardcore Poverty in Kenya-2022	
Nationally	3.6M
Rural Kenya	3.22M
Urban Kenya	387,000
Hardcore-poor children (0-17yrs)	1.7M
Hardcore-poor youth (18-35yrs)	914,000
Food Poverty in Kenya-2022	
Nationally	10.062M
Rural Kenya	11.45M
Urban Kenya	4.61M
Food-poor children (0-17yrs)	7.5M
Food-poor youth (18-35yrs)	4.4M

② PPP 관련 동향

○ 케냐-아다니 그룹 PPP 프로젝트 계약 취소

- 루토 대통령은 교통부에 아다니 그룹의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KIA) 프로젝트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림(24.11.21)⁹⁾
- 위 프로젝트는 JKIA에 두 번째 활주로를 추가하고 승객 터미널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로 총 규모는 USD 18억 5,000만¹¹⁾
- 또한, 에너지 및 석유부에 Ketraco와 이미 체결한 USD 7억 3,600만 규모의 전력 프로젝트를 취소하라고 지시¹²⁾

8) <https://nation.africa/kenya/business/how-high-living-costs-and-unemployment-have-pushed-many-kenyans-into-poverty--4827262#story>
 9) <https://www.the-star.co.ke/news/realtime/2024-11-21-ruto-cancels-adani-deals-in-kenya>
 10)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4/11/21/kenya-cancels-more-than-2-5bn-in-deals-with-adani-after-us-indictment>
 11) <https://www.the-star.co.ke/news/2024-07-24-kaa-speaks-on-proposed-plan-to-sell-jkia-to-adani-group/>
 12) <https://energycapitalpower.com/kenya-approves-900m-power-transmission-partnership-with-adani-energy/>

- 위 지시는 아다니 그룹 창립자인 고담 아다니와 그의 동료들이 에너지 계약과 관련해 인도 정부에 USD 2억 6,500만 규모의 뇌물을 제공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이루어짐¹³⁾
- 미국 연방 검찰은 Gautam Adani와 그의 동료 7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지급하여 유리한 계약 및 자금을 확보했다고 기소하였으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위 사안에 대한 거짓 진술 및 허위 사실로 은폐하려 했음을 발표¹⁴⁾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위 사안에 대해 반부패 및 증권법 위반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
- 아다니 그룹은 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취할 의사를 밝힘

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

○ 케냐철도공사, SGR 상환 불이행

- 케냐철도공사(KRC)가 재무부로부터 차입한 1,675억 KES 규모의 표준궤도철도(SGR) 대출에 대해 상환 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발표¹⁵⁾
- 이로 인해 1%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16억 KES에 해당. 이는 승객 및 화물 서비스 수익이 운용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현재 재무부는 세금 수입을 통해 대출 상환을 진행하고 있음¹⁶⁾
- 케냐철도공사는 위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중국 수출입은행(China Exim Bank)과 직접적인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밝힘. 또한, SGR 자금은 재무부를 통해 관리되는 차입금이며, 현재까지 연체 기록은 없다고 반박함
- 또한, 케냐철도공사는 회계연도 2023/24 동안 화물 물동량이 639만 톤을 초과하였고, 이는 목표치였던 600만 톤을 상회하는 성과

13)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4/11/20/indian-conglomerate-chair-gautam-adani-indicted-in-the-us>
 14) <https://apnews.com/article/gautam-adani-india-solar-energy-securities-fraud-bribery-9f4c7ff20e7a47ae560c2ad72f4dda44>
 15) <https://www.bursadaily.com/kenya-railways-denies-loan-default-clarifies-loan-agreement-china>
 Business Daily, Thur Nov 12, 2024
 16) <https://www.kenya.co.ke/news/106319-kenya-railways-denies-loan-default-clarifies-loan-agreement-china>

라고 밝힘

○ 케냐, NCIP 지역 내의 석유 파이프라인 계획 발표

- 케냐 석유부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지역과 북부회랑 통합프로젝트(NCIP)를 지원하기 위한 정제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¹⁷⁾
- 석유부 장관 Mohamed Liban은 NCIP 지역 회의에서 케냐가 이미 Eldoret(케냐)-Kigali(르완다) 구간 정제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을 위한 정부 간 기술위원회를 구성했음을 밝힘
- 케냐파이프라인회사(KPC)는 2024년 10월에 Nairobi-Eldoret 파이프라인의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음을 밝힘. 위 파이프라인을 통해, Nakuru, Kisumu, Eldoret에 위치한 연료 저장 시설을 지원. 또한 북부 탄자니아, 남수단,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DRC) 등으로 수출되는 연료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¹⁸⁾
- 제안된 Eldoret(케냐)-Kampala(우간다)-Kigali(르완다) 파이프라인은 NCIP에 속하는 784km 길이의 프로젝트로, Eldoret-Kampala 구간은 12인치 지름의 파이프라인이 설치될 예정¹⁹⁾



4 정치 동향

○ 케냐 주교회의, 정부 비판

- 케냐 가톨릭 주교회의(KCCB)는 정부의 공약 불이행 및 법치 훼손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²⁰⁾
- 2024년 11월 14일, KCCB는 성명을 통해 악화된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집권당이 “거짓의 문화”를 조장, 공약 파기, 부패 지속, 불합리한 우선순위 선정 등에 대해 비판
- 주교들은 과도한 세금, 청년 실업 증가, 건강 보험 개혁의 부실한 관리 등 시민들이 제기한 주요 문제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
- KCCB는 정부가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내세운 주요 공약들을 이행하고, 케냐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당부

5 대외관계 동향

○ 케냐, 대테러 지원금 수령

- 케냐는 대한민국 국제협력단(KOICA)과 유엔개발계획(UNDP)으로부터 23억 KES 규모의 평화 구축 및 폭력 극단주의 방지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받음
- 위 프로그램은 케냐가 주도하여 소말리아와 남수단에서도 시행될 예정²¹⁾

○ 케냐 비자 수수료 개정

- 2024년 11월 8일, 케냐의 전자 여행 허가제(eTA)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관광 산업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됨²²⁾
- eTA는 2024년 1월에 도입되었으며, COVID19 이전 연간 120만 명에 달했던 관광객 수를 회복하고자 하는 루토 대통령의 계획

17) MyGov Magazine Nov 12, 2024, pg 6

18)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industry/kenya-pipeline-ups-west-kenya-product-flow-rate-by-56pc-4805878>

19) https://www.gem.wiki/Eldoret-Kampala-Kigali_Petroleum_Products_Pipeline

20) <https://nation.africa/kenya/news/catholic-bishops-slam-ruto-government-culture-of-lies-abductions-must-stop--4823066>

21) <https://nation.africa/kenya/news/kenya-bags-sh2-billion-anti-terror-funding--4827518>

22)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kenya-gambles-on-new-visa-fees-tourism-sector-worried-4825460> The East African Nov 16-22, 2024

- 주요 eTA 수수료 변경 사항 :

* 출입국 승객 부과금: 모든 입출국 항공권에 대해 USD 4.95가 추가 발생

* 학생 eTA 신청 수수료: USD 30으로 책정

* 미국 관광객용 다중 입국 eTA: 5년 유효, USD 185로 조정

* 1년 유효 다중 입국 eTA: 기존 USD 500에서 USD 300으로 감소

- 위와 같은 수수료 개정으로 인해, 케냐의 비자 수수료는 이웃 국가들보다 높은 상황. (르완다는 대부분의 비자 요건을 면제, 우간다의 비자 수수료는 체류 기간에 따라 USD 50~200으로 다양)

- 관광 업계 관계자들은 케냐의 비자 수수료 인상이 이웃 국가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밝힘. 이에 잠재적인 방문객들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국제앰네스티, 케냐에서 납치된 우간다 야당 지도자 사건 비판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4년 11월 16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발생한 우간다 야당 지도자 Kizza Besigye 박사의 납치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해당 박사는 2024년 11월 20일 우간다 Kampala 군사법원에 출두²³⁾

- 위 사건은 정부가 국경을 넘어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초국가적 억압”의 우려스러운 사례로 간주

- 지난 10월 Nairobi에서 발생한 4명의 터키 반정부 인사 납치 및 본국 송환 사건 이후 발생. 이러한 초국가적 억압 행위가 점점 증가하는 것에 대해 국제적 비판을 받는 중²⁴⁾

23)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4/11/ugandas-opposition-politicians-abduction-in-kenya-continues-a-growing-and-worrying-trend-of-transnational-repression/>

24) <https://www.bbc.com/news/articles/cv9gw5n0y0lo>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①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Kenya Project²⁵⁾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주지사 협의회(Council of Governors)
- (도 급 사) 주지사 협의회 및 각 카운티 정부²⁶⁾
- (사 업 비) 3억 KES
- (펀딩) 유럽연합(EU), 유엔식량농업기구(FAO)
- (사업내용)
 - 전국적인 토지 관리 개선을 위한 GIS 장비 도입
 - GIS 장비 공급, 운영 지침서 작성, 교육 매뉴얼 개발 등이 포함
- (추진현황)
 - 2012년: 정부가 모든 카운티에 GIS 기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²⁷⁾
 - 2019년: 국가 공동 지도 및 자원 지도 사업 시행 및 지리 공간 조사와 자원 지도를 실시
 - 2024년 10월 31일: 초기 단계에서 9개 카운티에서 GIS 기술 도입 성공 이후, 추가로 30개 카운티에서 GIS 기술을 채택하여 총 47개 모든 카운티에 GIS 연구실 구축

○ (주요동향)

- 2024년 10월 31일, 주지사 협의회 의장 Ahmed Abdullahi가 GIS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
- 위 사업은 카운티 정부, 유럽연합(EU),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의 협력으로 추진되며, GIS 기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지침을 포함
- GIS 시스템은 식량 안보 강화, 생계 개선, 케냐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인 Vision 2030과 연계될 예정²⁸⁾

25) <https://eastleighvoice.co.ke/national/86687/kenya-launches-sh300m-gis-initiative-to-transform-land-management>

26) <https://www.cog.go.ke/phocodownload/reports/GIS-Needs-Assessment-Report-2017.pdf>

27) <https://www.africanews.com/2012/11/22/kenya-passes-law-making-it-easier-to-adopt-gis-based-data-services-and-the-results-are-immediate/#:~:text=Kenya%20passed%20a%20mandating%20local%20authorities%20to%20invest%20in%20GIS>

28)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opinion-analysis/columnists/counties-should-establish-gis-driven-systems-for-smart-planning-4830092>

② Tanzania Standard Gauge Railway²⁹⁾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탄자니아 철도 공사(TRC)
- (도 급 사) Yapi Merkezi Insaat ve Sanayi Anonim Sirketi³⁰⁾
- (사 업 비) USD 100억 달러
- (펀딩) 스탠다드차티드(Standard Chartered),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China Export &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사업내용)
 - 탄자니아와 부룬디를 연결하는 총 길이 2,561km의 표준궤 철도 건설
 - Dar es Salaam 항구를 빅토리아호의 Mwanza와 연결하여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DRC), 르완다, 우간다까지 연결 예정
 - 단계별 구간 :
 - Phase 1: Dar es Salaam -Morogoro (300km) ³¹⁾
 - Phase 2: Morogoro-Makutupora (422Km)
 - Phase 3: Makutupora-Tabora (294Km)
 - Phase 4: Tabora-Isaka (130Km)
 - Phase 5: Isaka-Mwanza (249Km)
 - Phase 6: Tabora-Kigoma (506Km)
- (추진현황)
 - Dar es Salaam-Morogoro-Dodoma 구간은 현재 운영 중
 - 정부는 SGR 사업에 투자 의사를 보인 기업들과 협의 중임을 밝힘

○ (주요동향)

- 탄자니아 철도공사(TRC) 임시 사무총장 Mateshi Tito는 Kigoma (탄자니아) - Musongati (부룬디) 구간 건설을 위해 스탠다드차티드,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세 개의 국제 금융기관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힘. 이에 곧 건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해당사항 없음

29)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tech/tanzania-secures-financiers-for-sgr-link-to-burundi-4824480> The East African Nov 16-22, 2024

30) <https://www.thecitizen.co.tz/tanzania/news/national/sgr-contractor-reinvests-70-percent-of-project-proceeds-4714328>

31) <https://www.tanzaniainvest.com/sgr#:~:text=Tanzania%20Standard%20Gauge%20Railway%20SCR%20Phase%201%20Phase%206%20Tabora%20Kigoma%20Km%20506>